社 說

연구풍토 쇄신할 통폐합되길

올해들어 학내에 대대적인 개혁바람이 일고 있다. 의식개혁, 제도개혁, 행정개혁이란 모토아래 새로운 대학교육 창달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캠퍼스 연구처의 연구소 통폐합안이 실질적으로 거론,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연구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측면에서 단행되는 이번 연구소 통폐합안은 서울캠퍼스 부설 30개 연구소를 20여개로 축소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각 연구소의 지난 3년간 교내외 연구비 수혜실적을 기준으로 연구활동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적은 연구소를 서로 통합, 보다 나은 연구소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이다. 이번 연구소통폐합이 단행될 경우 연구비의 액수의 규모가 커지고 공동연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단과대의 특성이 최대한 살려진 공동연구의 성과는 대학의 학문발전외에도 외부지원의 규모를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보여진다.

그동안 우리학교 부설연구소 기능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연구소 간판만큼 연구실적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연구소측에서 보면 연구능력을 뒷바침할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벅찬감이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연구지원비의 부족이었다.

10월말경에 구도가 분명해질 연구소 통폐합안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현재 경희 알파이어 연구소, 고고미술사 연구소, 전통문화연구소는 인문학연구소로 통합하려는 교수들의 자체조정안이 학교당국에 제출된 상태이다. 일부에선 이번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연구소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나 지원이 없었던 것에 반해 지금에 와서 성과만을 두고 심판대에 올리는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학문의 가치기준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연구소를 묶는 것은 무리이며 일부 연구분야는 일정 연구기간이 지나야 연구성과가 가시화되는데 이를 기다려줘야 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다.

모든 개혁에는 진통이 따른다. 연구소통폐합안의 시행에도 적지 않은 과정이 일 조짐이 확연하다. 우리는 우리대학의 연구풍토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학교의 위신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연구소임을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학교 연구소가 일신우일신 하는 측면에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조치에 각 연구소가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각 연구소가 의견을 제출하여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구원들의 자기학문에 대한 열정만큼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학교당국도 이번 연구소 통폐합안이 근본적인 연구소 지원의 대책이 될 수 없고 단지 정책적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음을 인지하고 현재 일고 있는 이번 조치의 반향들에 귀를 기울여 순리대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반가운 판결, 또 한번의 호들갑

이적표현물을 소지, 토론했더라도 그것이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탄력적 적용이라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전 전북대생 이기연, 이상희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죄는 불고지죄와 함께 국보법 중에서도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잦아들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뿌렸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이적표현물 소지로 걸고 넘어지는 공안기관의 악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중에서 아무렇지 않게 팔리고 있는 사회과학 서적이 전공서적과 나란히 책꽂이에 꽂혀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국보법 위반에 관한 대부분의 기사가 정말로 국가 안위를 위협했다기보다는 찬양·고무에 관한 죄나 반국가단체 구성에 관한 죄,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죄 등 다분히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 억지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적이란 무엇인가? 적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공안당국에서 말하는 적이란 북한을 지칭하며, 이적이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방국과 적국은 외교관계에서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한승주 외무장관의 국회발언은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발설하는 점에서 사고방식의 일대혁신으로 보인다. 또 단순히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이적행위라면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들의 논리라면 정부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적행위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국보법을 위반해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은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국보법의 외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멀리는 고해성사에서 들은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제가 구속되고, 가까이는 대학교재의 이적성을 문제삼아 교수들까지 구속하려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하위법인 국보법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현실도 인정할 수 없고, 학문·사상의 자유가 국가 안위와 충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진리든 오류든 간에 학문적 성과를 두고서 비전문가인 검찰과 언론이 재단하고 단죄하는 지금의 풍토는 후세에 슬픈 역사로 기록될 뿐이다.

국보법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열에 아홉은 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기사였다.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무리한 법적용인가"라는 기사보다는 오히려 양심적인 하나의 판결에 호들갑을 떨며 반기고, 사법부를 칭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때마다 국보법의 개폐를 주장해왔다.

국보법과 관련한 헙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아도 될 날은 멀기만 한 것인가?

사론

주가 1000포인트 고지에 서서

화려한 수치 치유할 상처는 여전

신 이 영
(생명보험협회 기획부장)

주가지수 '네자리시대'

주가지수 '네자리시대'가 다시 막을 올렸다. 지난 9월 16일 종합주가지수가 드디어 1천포인트를 돌파했다. 89년 4월 1일 1천포인트를 기록한 이래 오랜 동면기를 거쳐 실로 5년 5개월만에 기지개를 활짝 편 것이다. 우리나라의 GNP 규모가 3천억불에 달하고, 연간 무역규모도 2천억불대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종합주가지수 1천포인트가 달성되었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주가지수 1천포인트 돌파는 지난 89년 4월이후 5년여에 걸친 경제의 여러가지 변수와의 조정을 끝마치고 이제 증권시장이 비로소 본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신호등을 켜 보인 것이다. 89년 당시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이 12.0%에서 6.9%로 하락하였고, 국제수지(경상수지)도 1백42억불 흑자에서 51억불 흑자로 축소된 시점에서 달성된 1천포인트로서 매우 불안한 장래를 보여준 '노란불' 아래서의 주식시장이었다면, 금년 9월은 GNP 성장률이 작년의 5.6%에서 금년에는 8.3%로 높아질 전망이고, 경상수지는 비록 작년의 균형상태에서 25억불 적자로 확대가 예상되는 국면이기는 하나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과란불'이 켜진 상태의 주식시장이라는 점에서 89년 당시와 크게 다른 상황이다.

'89년/'94년의 경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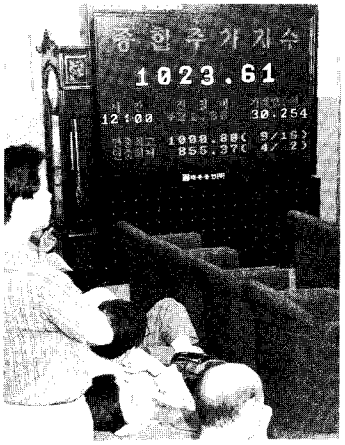
구 분	'89당시		'94현재	
	'88	'89	'93	'94추정
경제성장률(%)	12.0	6.9↓	5.6	8.3↑
경상수지(억불)	142	51 ↓	0	△25 ↓

이길은 거시경제 측면이외에 주가 1천포인트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87년이후 7년만에 찾아온 기업수익성의 호조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설물경기의 상승이 이룰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주가상승을 제약했던 시중자금의 경색이 안정되면서 주가상승에 큰 몫을 보탰다. 불가안정 때문에 뜬돈을 쥐고 있던 통화당국이 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해 통화관리를 신축성 있게 운용하는 정책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와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침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차익에는 계속 비과세하겠다는 점 등이 두루 주가 1천포인트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지수만 파안대소

그러나 이같이 겉으로 드러난 주가 1천포인트시대가 장미빛만으로 장식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난 9월15일자 한국경제신문은 이같은 주식시장을 빗대어 "지수는 '파안대소'하고 있으나 투자자는 '대성통곡'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가 1천포인트를 떠받치고 있는 종목은 일반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한데 유화주다, 전자업종이다 해서 가치중심으로 형성되다 보니 이들 주식과 일반대중들이 주로 갖고 있는 시중은행을 비롯한 일부 증권가 대형제조업 주식 등과는 현저한 가격차별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이른바 '주가양극화'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지수 1천포인트는 빛이 바랠 수 밖에 없다.



주식시장 개선돼야

현재의 주식시장을 특징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정부의 계속적인 증시개입이다. 시의적절한 증시개입은 필요하다. 이것은 통화정책이나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정책변수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가 있다. 책임회피나 증시호황을 왜곡하는 규제여서는 곤란하다. 과거에도 수많은 개입조치가 있었는데, 이번해도 9월16일이전 4~5일간 계속 1천포인트에 육박하자 중안기금을 동해 주가를 압박하거나, 기관투자가들에게 매도압력을 넣어 1천포인트 돌파를 억제하는 등의 단편적인 대응은 정상적인 시장호름을 뒤흔드는 엉뚱한 결과만 초래하게 되었다.

지금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문제는 우선주가 너무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선주발행제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주에 비해 1%포인트 정도의 배당률을 더만 보면 당연히 보통주 이상의 주가가 형성되어야 하나 심지어 보통주의 50%까지 허락한 주식까지 있어 이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발행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기존주 주지분에 영향도 끼치지 않고, 부채비용도 늘지 않으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 우선주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한다.

총론·각론 일치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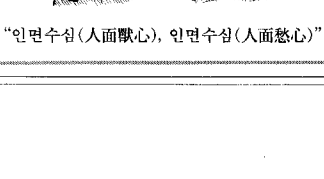
현재의 1천포인트시대가 '속빈 강정'이고, '외화내빈'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체로 증시전문가들은 장래 주가에 대해서 낙관론을 많이 펴고 있다. 총론은 대세상승이지만 각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우리 경제가 세마리 토끼(국제수지, 물가, 경제성장률)를 잡으면서 안정성장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증시규모면이나 기업환경 등이 89년과는 비교가 안되게 좋다는 점 때문에 장래를 낙관하고 있다. 증시규모면에서 볼때도 시가총액이 1백36조원으로 커졌고, 기관투자가의 비중도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실적주 중심의 합리적인 투자관행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의 1천포인트 돌파는 단기상승의 마무리단계가 아니라 장기상승의 진입단계라는 점에서 낙관적이다.

그러나 각론 부분에서는 여전히 주가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고, 단기 급상승에 따른 차익매물의 출현, 추석이후 통화환수, 계속된 회사채 수익률의 상승은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투자자보호,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정부, 상장기업, 증권회사, 투자자 모두가 합리적인 정책건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정신, 자기책임화의 투자정신을 제각기 발휘할 때 주가지수 1천포인트 시대의 총론과 각론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우량주 위주의 빈익빈 부익부 낳아
효율적 증시위해 정부개입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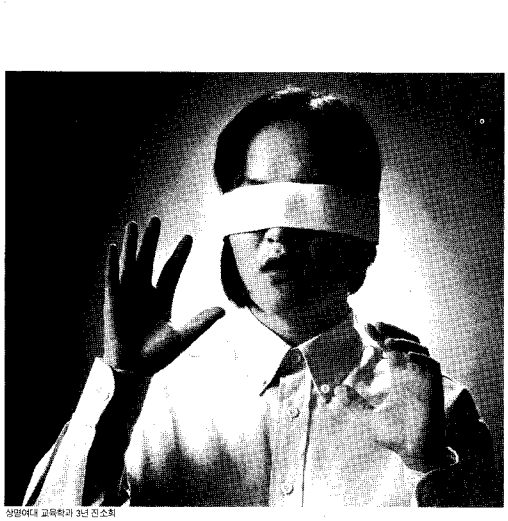
(고) (황) (만) (평)



"인면수심(人面獸心), 인면수심(人面愁心)"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기업 — 삼성

마음을 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상명여대 교육학과 3년 진소희

눈을 가리고 30분만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사회의 구석진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변기라는 깨끗 안경, 더듬거리던 지팡이, 지하철 안에서 부딪쳐 지나쳐 버린 얼굴 — 그날 밤 더듬거리던 지팡이가 자꾸 진소희양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몇년전의 기억 한토막이 새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하교길의 버스 안에서 지친 몸을 쉬고 있을 때 눈 앞을 맹인이던 모발 소년, 자리를 양보하기 쉽어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소희양은 한국복지재단을 찾아 갔습니다. "눈을 가리고 30분만 맹인 아닌 맹인이 되어 보세요." 자원봉사자로 배치받은 첫날, 진소희양은 평생 잊지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더듬더듬 주변을 스치는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안타깝게만 한 어둠의 세계,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이 세상의 반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싶지 않은 것들을 감추고 외면한 기억이 있습니다. 길가의 걸인, 생활이라는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소년가장,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 혈액을 급구하는 라디오 방송,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한걸음만 다가서 보세요.
시간, 노동, 돈, 누구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한가지씩은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찮은 도움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는 대학생활의 필수 과목 — 삼성은 이웃 사랑의 작은 실천으로 자원봉사에 앞장서는 이 땅의 젊은이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SAMSUNG
삼성